

48호, 2004, 05-6

01 여는 그림

02 (책을 열며) 5월을 보내며...- 변연식

03 (시론) 미국의 1-4-2-1 군사전략 - 서재정

04 (세계평화운동동향) 섬 전체가 미군과 싸우는 비에케스 사람들

05 (평화교실) 미국의 거대 군수산업(1)

06 (토론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의 법적 문제점과 불평등성 - 장주영

07 (투쟁현장에서) 밑바닥 여론은 우리가 책임진다

08 (평택 농활을 다녀와서) 농민들에게 땅은 목숨과도 같다라는.. - 주정숙

09 (회원탐방) 세옥

◆책을 열며◆

5월을 보내며...

평통사 공동대표 변 연 식

아주 오래 전 시댁에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탄 적이 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는데 어둠 속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몹시 난감하였다. 등에는 아이를 업었고 양손에는 기저귀 가방 등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항 터미널로 이동하기 위해 셔틀 버스를 타야 했는데 버스 두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얼핏 보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 보이는 버스 쪽을 선택하여 끽끽거리며 올라갔다.

아이를 내려놓고 버스 안을 둘러보니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한사람만이 앉아 있었다. 늘 존경해 마지않던 재야 출신 국회의원이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어 목례라도 하려는 찰나인데 어디선가 공항 경비대원이 나타나더니 이 차는 의원 전용이니 아줌마는 내리라고 말하였다. 사정을 하였지만 막무가내였다. 거기까지 아이를 업고 끽끽대고 올라온 노력이 아까웠던 나는 그때까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국회의원을 쳐다보았다. 의원전용이라는 특혜에까지 탄지를 걸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 동안 내가 간직했던 고귀한 인품의 그 사람 이라면 적어도 그냥 함께 갑시다. 정도는 그 젊은이에게 해줄 걸로 당연히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띠더니 말 그대로 먼산을 바라보았다.

십여 년이 지난 일인데도 그날을 생각하면 쓴웃음이 나온다. 그 날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아무리 개혁이니 실용이니 하는 책을 냈다는 소식이 들려도, 어디 어디 이사장으로 앉은 후 광주 5.18 묘지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다는 뉴스를 들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 거짓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오월.

나는 아직 오월의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그 많은 집회에서 불려지는 입을 위한 행진곡을 차마 따라 부르지 못한다. 오월을 입으로만 부르고 있을까봐 나 자신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 해 오월에 우리의 선배와 동생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그들은 국회를 잘도 들락거리며 의원전용 앞문과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온갖 폼을 잡더니 무슨 때만 되면 5.18 묘지에 가서 머리를 조아린다. 이라크 파병 당론이라는 변명에 숨어 온 국민을 더러운 침략전쟁의 공범으로 만들어 놓고서 다시 그곳에 가 머리를 조아린다. 이라크는 광주이다. 이라크의 팔루자는 광주의 도청 앞이다. 이라크에 파병해놓고 제발 광주에는 가지 마시라. 과거에 양심수였던 당신들... 누구보다도 이 전쟁이 더러운 침략 학살 전쟁임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처럼 이라크 파병 동의 안 처리 때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국제 뉴스로 나왔더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들 얼마나 떳떳하겠는가.

새로 국회에 들어가는 민주노동당 당선자들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특혜의 거부와 이라크 파병 반대이다. 그 말만 들어도 씩씩한 가슴이 풀리는 듯 하다. 그러나 그대들도 정신 차릴지어다. 행여 그 많은 또 다른 형태의 특혜에 현혹되지 말고 아이 업은 아줌마가 두 손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올라오면 제발 먼산 보지 마시라! 외면하지 마시라. 사람들은 안다.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가 오월의 노래를 진짜로 부르고 있는지, 가짜로 부르고 있는지...

미국의 1-4-2-1 군사전략

미국 코넬대 교수 서재정

미국 부시행정부는 9.11이후의 변화된 세계안보환경에 대응하여 1-4-2-1 군사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90년대 탈냉전시기 전략으로 채택되었던 양대전쟁전략을 대규모 전쟁 2곳에서의 신속한 승리와 이중 한 곳에서의 결정적 승리로 보다 공세화한 것에 덧붙여 △4개 지역에서의 전쟁억제와 △미국본토방위를 추가한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전쟁억제를 위해 미군을 전진배치하기로 한 4개 지역의 하나일 뿐만아니라, 신속한 승리를 추구하는 주요전쟁 두 곳의 하나이다. 2개의 전쟁예상 지역 중 결정적 승리를 거두겠다는 1의 지역이 한반도가 될 지의 운명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 채택된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미군은 대대적인 군사력 개혁과 전세계에 걸친 기지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

1990년대초 부시(아버지) 행정부는 탈냉전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군사력 감축을 고려하고 해외에 배치된 단거리 핵무기를 철수하는 등 능동적으로 탈냉전을 모색했다. 구 소련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며, 탈냉전시대의 전략으로 win-hold-win, 즉 주요한 지역 분쟁이 동시에 두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군사력을 집중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두 번째 지역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가 첫 번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면 군사력을 이동하여 두 번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전략에 따르면 냉전시대에 구축해 놓은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이 감축된 군사력만으로도 세계의 주요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된 미군의 감축안이 마련됐고, 주한미군의 3단계 철수방안도 이러한 세계적 감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989년 년-워너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군비감축을 요구하는 미 의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것이 동아시아전략구상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1993년 win-win이라는 양대전쟁전략으로 선회하게 된다. 중동과 한반도라는 양대전장에서 동시에 승리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이 채택되는 데는 1991년 걸프전과 1990년대 초의 1차 북핵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대전쟁전략은 1997년과 2001년 4개년국방검토(QDR)에서 재확인되며 미국의 21세기 전략으로 굳혀진데 이어 2002년 국방계획 지침에서 1-4-2-1 전략으로 보다 확대되고, 정교화되고 있다.

1993년 Bottom-Up Review는 양대전쟁전략을 정식화한 첫 공식문서이다. 걸프전에 투입됐던 미군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유사한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 필요한 군사력을 추정해 본 아스펜 당시 국방장관의 작업에 기초해서 양대전쟁전략이 정식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Bottom-Up Review는 다음과 같이 양대전쟁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미군은 두 개의 주요한 지역분쟁에서 거의 동시에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편성될 것이고 ... 미군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유연성과 능력을 보유할 크기와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대전쟁전략은 win-hold-win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군

사력과 국방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Bottom-Up Review의 채택과 동시에 미군의 감축계획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3단계 감군을 1단계에서 중단시킨 후, 미국이 1995년 동아시아전략검토 보고서를 채택하고 아시아와 유럽에 각각 미군 10만명을 유지한다며 전 세계적인 미군 감군계획에 쐈기를 막는 것도 이 같은 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미 군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군 중단이 아니라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다. 기존의 군사력으로는 양대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서 승리를 거두기에 힘겨우므로 양대전쟁전략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군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크게 현상유지의 수준에서 부분적인 군사력 보강을 한다는 식의 미봉책으로 대응했다. 비교적 온건파인 민주당 정권에서 군사력 증강을 노골적으로 추진할 국내, 국제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7년에 발표된 제1차 4개년국방검토(QDR)은 양대전쟁전략을 유지하면서 미사일방어 연구 등을 부분적으로 추진하되 전체적인 군사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9.11 사태가 터진 지 20여일 만에 현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2001년 4개년국방검토(QDR)는 양대전쟁을 계승하되 이를 더욱 공격적으로 전환시켰다. 즉 미군은 중첩되는 시간대에 어느 두 개의 전장에서든 미국의 우방과 우호국에 대한 공격을 신속히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이라며 양대전쟁 전략을 다시 한번 채택했다. 또한 전쟁시 (적국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정권교체의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 이전까지의 양대전쟁전략이 걸프전과 같이 전쟁을 도발한 적국과 싸워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봉쇄정책의 성격이 강했다면, 새로운 양대전쟁전략은 적국의 점령과 정권교체까지도 목표로 하는 롤백정책이라고 할 만 하다. 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서라도 군사력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신속하게 군사력을 이동해서 곧바로 전쟁에 투입하여 조기에 전쟁을 끝낸다는 전술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신속성과 점령/정권교체라는 공격성이 이라크 전쟁에서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의 롤백은 기존의 롤백정책보다도 더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기존의 롤백정책은 적국의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응전을 하는 과정에서 적국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피동적 자세였다면, 부시 행정부의 신 롤백 정책은 적국이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안보위협을 사전 봉쇄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보다 호전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는 9.11사태 이후 테러리스트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국인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미국을 안전한 요새로 만들기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방어책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즉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보복을 하는 것은 이미 피해를 입은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것이므로 공격 가능성만 있어도 사전에 타격을 입혀 공격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럽스펠드 국방장관의 말처럼 미국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마저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안보위협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안보 편집증적인 안보관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2001년 럽스펠드 장관이 나토 동맹국들을 방문하면서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부시 대통령이 육사 졸업식에서 선제공격을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축사에 이어 선제공격은 2002년 공식화됐다.

9.11사태 일주기를 맞는 2002년 9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부시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미국은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공표를 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어서 2002년 5월 방어계획 지침 (Defense Planning Guidance)을 채택하여 4개년국방검토에서 제기된 국방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양대전쟁 전략을 1-4-2-1 계획 개념으로 정식화했다.

여기서 △1은 미국 본토의 완전한 방어 △4는 4개 지역에서의 전진억제 △2는 2개 지역전장에서의 신속한 승리 △1은 1개전장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의미한다. 기존의 양대전쟁은 2로 유지하면서, 1-4-1을 추가하여 미군의 역할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미국 본토 방어는 9.11 이후 그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어 북미주를 관할하는 사령부와 본토방위국의 신설을 가져왔고, 미사일방어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개지역에서의 전진억제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 4개 지역에 미군을 전진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있을지 모를 침략 및 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4개 지역중 2개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4개 지역에 전진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두 곳에 집중하여 단기간에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전쟁 중 미국이 선택하는 한 곳에서는 군사력을 총집중하여 정권교체와 점령을 수행함으로써 결정적 승리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미군은 육해공해병의 변혁과 합동화를 추진하고 있고, 정규군과 특수군 및 CIA와의 결합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핵전력을 통상전력의 상위군사력으로 구분하던 것을 폐기하고 핵전력과 통상전력의 통합적 운용을 추구하고 있어 실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 국방장관실을 위해 작성된 한 보고서는 1-4-2-1에서는 전략핵무기가 통상전력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테러리즘과 불량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대응 능력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2가 이라크와 북한을 지칭한다는 부분이다. 특히 양대전쟁 전략이 수립될 때부터 지목된 양대주적 중 이라크에서는 정권교체와 점령까지 이루었으므로 이제는 북한만 남은 셈인 것이다. 결정적 승리를 지향하는 마지막 1과 관련하여 QDR과 국방계획지침은 미 대통령이 그 대상을 선택만 하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는 이라크 전쟁이라는 사막의 늪에 미군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북을 상대로 결정적 승리를 거두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이 북을 겨누고 있는 한 한반도는 2와 1의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군사적 위협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으며 중국은 현재로서는 계획을 짜기 어려운 상대로 인식되고 있다.

이 1-4-2-1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미국은 군사변환 (military transformation)과 미군기지 재조정 작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첨단과학무기를 이용한 비선형적 첨단전을 지향하는 군사혁신을 이룩하여 미군을 21세기의 첨단군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 군사변환의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 △정보 및 군사결정의 우위 △정밀타격 △군사력 신속투사 △전술적 신속성 △군대 방어력 제고 △지상, 해상, 공중 및 우주 전장 지배능력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이뤄진다면 군사력의 규모는 현재보다 축소되더라도 1-4-2-1 전략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미군 재배치 및 미군기지 재조정 작업도 바로 이 1-4-2-1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미군을 4개 지역에 전진배치하되 이중 두 지역에는 신속하게 군사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사변환과 재조정의 상승작용이 나타나면, 보다 작은 군대로도 군사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1-4-2-1 전략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현 부시 행정부 군사전략의 요체라고 하겠다.

◆세계평화운동 동향◆

섬 전체가 미군과 싸우는 비에케스 사람들

『르포 군사기지와 싸우는 사람들』(류쿠신문사 편, NHK출판, 2003년 발행)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으로 두 차례로 나누어 신는다. 비에케스는 우리 나라의 매항리와 같은 곳으로 주민들의 투쟁으로 미국이 결국 폐쇄를 결정하였다. 이 글은 폐쇄 결정 전에 쓰여진 것이다.
-편집자 주

미군기지가 섬의 3분의 2를 차지

비에케스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으로 미국의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에 속하고, 푸에르토리코 본섬에서 동쪽으로 약 10킬로 떨어져 있다. 면적은 오키나와의 약 9분의 1이며 인구는 약 9,400명이다. 미 해군이 섬의 3분의 2와 주변의 공중 및 해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작은 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군사기지가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 왔는데, 한국의 매항리, 일본의 오키나와로도 불린다. 섬의 동쪽 연습장에서는 1947년부터 사격 및 폭격훈련이 행해지고 있다.

99년 4월 19일, 33세의 데이빗 사네스가 미해군의 FA18 전투기가 떨어뜨린 2발의 500파운드(약230킬로)폭탄에 맞아 숨졌다. 사네스는 군과 계약한 민간경비회사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섬 동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군 시설 캠프 가르시아의 감시탑에서, 연습장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감시탑은 훈련장의 서쪽, 섬의 중앙부에 있는 조금 높은 언덕 위에 있다.

미군시설은 언덕의 서쪽으로 주민 거주지에까지 미치는데 그 시설 안에서는, 낙하 훈련이나 상륙 훈련을 한다. 언덕의 동쪽에서는 군함의 포격이나 항공기의 지상폭격, 상륙 지원의 폭격 훈련 등이 실시되고 있다. 경비원들의 임무는 시설 내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해상의 군함과 미군기에 알리는 것이다. 미군기는 감시탑을 목표물로 오인했던 것이다. 폭탄은 콘크리트 3층 건물인 감시탑에 있던 경비원들의 머리 위에 떨어져, 한사람이 죽고 네 사람이 부상당했다. 사네스의 죽음은 예견된 것이었다. 오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파엘로 도브즈(51)는 사네스처럼 기지 내의 경비원이었다. 도브즈는 95년 8월에도 모의탄이 감시탑에 떨어져, 파편이 3개나 그의 등에 박혔다고 말했다. 사고로 신경은 끊어졌고,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게 되었다. 집 근처 언덕 길을 혼자서 걷고 있는데, 합승택시 파브리코의 운전수 도로레스 페릭스(54)가 소리쳐, 택시에 타게 됐다. 처음에는 입이 무거운 도브즈였지만, 이 섬의 주민 얼굴을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활달한 페릭스인지라,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가슴에 단 장애자 증명서를 보여 가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지금도 폭탄이 떨어진 날이 떠오르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미국 해군 때문에 자신은 걸을 수 없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입었다. 조용한 어조이지만 분노에 차 있었고,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주민들은 93년 10월, FA18전투기가 섬 중앙에 밀집한 민간주택 지역과 불과 1 ~ 2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에 500파운드짜리 폭탄 5발을 떨어뜨렸다고 말한다. 폭격 목표 지점에서 무려 15킬로미터 이상이나 떨어진 곳이다. 페릭스는 92년까지 20년간, 기지의 경비원으로 일했다. 그만두기 전 10년간은 현장감독을 해서, 사네스도 잘 알고 있다. 담배도 피지 않고, 성실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자였다.

사네스의 아버지는 완고한 친 해군파였지만, 어머니는 자식의 죽음으로 해군의 훈련을 반대하게 되었다. 사네스의 죽음에 낙담한 어머니는, 2년 후 같은 날 돌아가셨다. 페릭스는 미군 연습의 실상을 가까이 보면서 군 경비가 싫어져 합승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친 해군파였지만, 지금은 정반대가 되었다.

해군이 전투기로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군함에서 섬을 포격하는 것을 계속 봤다. 이제 섬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이 아름다운 섬은 해군이 없다면, 관광객이 밀려들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이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생기는 연기로 섬은 오염되고, 주민의 건강은 해로운 영향을 받는다. 미군이 섬 주민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아는 사실이다.

페릭스는 실업자가 넘쳐나는 섬 사람의 목소리를 차를 몰면서 알려나갔다. 사네스의 죽음은 주민들의 반미감정에 불을 질렀다.

주민이 1년이 넘게 미군 폭격장을 점거

사네스가 폭사한 이틀 뒤인 99년 4월 21일, 주민들이 15척의 어선을 끌고 미해군의 폭격 훈련장에 들어갔다. 탄피들이 널려있는 폭격 지점에 큰 십자가를 세웠다. 사네스의 죽음을 애도하며 데이빗의 산이라고 이름 붙였다. 주민들은 근처에 작은 움막을 지었다. 폭탄훈련에 항의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군사시설은 철조망으로 둘러치고, 총을 가진 군인이 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배를 이용해 목재 등의 재료를 운반했다.

이런 움직임은 여성단체, 미국에서 온 독립파, 교사, 노동조합, 교회, 학생 등에게 퍼져 갔다. 각자 작은 움막이나 텐트를 쳐서, 폭격장에 14개의 캠프가 만들어졌다. 물이나 식량은 어민들이 해상을 통해 매일매일 전해주었다. 주민들은 미군시설 안팎에 만들어진 저항의 거점을 평화 캠프라 부른다. 2000년 5월 4일까지, 1년 이상 훈련장을 점거했다.

푸에르토리코의 로세쥔 지사는 사고 다음날, 클린턴 대통령에게 폭격훈련의 즉각 중지와 기지 반환을 요구했다. 미 정부는 비에케스의 미군활동을 조사할 특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미 해군장관은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습 중지를 명령했다. 반미군 활동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비에케스의 구조와 발전을 위한 위원회(CRDV)의 닐나 메디나(44)는 말한다. 단체를 만든 10년 전에는 혼자서 활동했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일어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데이빗 사네스의 죽음으로 달라졌다. 모든 주민조직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분노하기는 비에케스 뿐만 아니라, 푸에르토리코 본섬과 미국 본토에 사는 푸에르토리코계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워싱턴에서는 푸에르토리코계 의원들이 해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해군은 군사적인 대응 태세에 영향이 있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미 해군의 폭격훈련을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갈수록 확산되자 클린턴 대통령은 99년 12월, 주민들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5년 이내에 폭격훈련을 중지하고 시설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주민운동이 결국 대통령을 굴복시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연습의 즉각 중지를 요구한 로세조 지사와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 비에케스 구조위원회(CRDV)는 폭격장이 있는 캠프 가르시아 문 앞에도 평화캠프를 쳐서, 문을 봉쇄했다. 군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도로의 한가운데 서서 몸으로 통행을 저지했다. 미군은 반년간이나 군 시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사태가 계속됐다.

강제로 밀려난 훈련반대 시위 주민들

주민들은 1년 이상 폭격훈련장을 점거하고 6개월 간 미군시설의 문을 봉쇄한 채 군의 통행을 막고 싸웠지만, 결국 강제 철거되고 말았다.

2000년 5월 4일 폭격장이 자리한 캠프 가르시아의 문 앞, 주변은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 있었다. 티브이 방송국의 강한 조명이 주민, 경찰, 군을 각각 비추고 있었다. 미국의 3대 텔레비전과 신문, 잡지 등의 미국 내외의 주요 언론이 몰려들었다. 주민들은 눈 앞에 무언가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

오전 4시, 주민들과 약 2주간 대치하고 있던 연방보안관이 목재와 나뭇잎으로 만든 움막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오전 5시가 넘자 경찰이 문 앞에 일렬로 서고 군인들은 뒤에서 주민들을 둘러쌌다. 그리고 주민들을 군사시설 안쪽으로 몰아 넣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기지 안으로 두 세 걸음 들어가자, 연방보안관이 연방보안법에 의해 전원 체포한다고 선언하며 플라스틱 수갑을 채웠다. 미군시설에 불법 침입했다는 이유였다.

비에케스 구조위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사람인 이즈마엘 과달루페(전직교사, 57세)는 체포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했지만, 비폭력의 자세를 취해 스스로 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찼다.

잠시 석방된 과달루페는 9일 뒤인 5월 13일, 53 명의 주민과 함께 다시 체포되었다. 그가 기지의 불법침입으로 체포된 것은 4번으로, 유죄판결도 받았다. 법정에서는 판사가 물어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푸에르토리코는 식민지 상태에 있고, 재판정은 식민지 지배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재판한다.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어서 데려가라고 소리쳤다.

기지 정문 앞에서 64명, 폭격훈련장에서도 150명 이상이 구속되었다. 체포된 사람만 200명이 넘었다. 연행된 주민들은 비에케스에 자유를!이라고 외치며 묶인 팔을 자랑스럽게 치켜 올렸다. 그들은 해군의 상륙용 배에 태워져 푸에르토리코 본섬 동쪽에 있는 루즈벨트 로드 기지로 연행되었다. 명찰을 머리에 걸치고 상반신 사진을 찍었다. 그 뒤 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이번에 한해 석방한다는 경고와 함께 루즈벨트 기지 정문 앞에서 풀려났다. 비에케스 행 페리의 마지막 배는 벌써 떠난 뒤라 어부들의 배를 이용해야 했다. 미 해군은 5일 후 폭격훈련을 재개했다.

미 해군이 전시 하에 토지를 접수

비에케스는 미국자치령 푸에르토리코의 섬에 속하지만, 미군시설이 들어선 것은 오키나와와 비슷하다. 미군은 사탕수수가 주 산업인 이 섬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토지를 강제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들 많은 토지가 농경지였는데 그 대부분이 사탕수수 대농장이었다. 토지는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매수되었다. 해군이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 들이든가 아니면 24시간 내에 강제로 쫓겨나야 했다.

섬의 3분의 2가 미군기지로 접수되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많은 주민은 생활기반을 잃었다. 미국 케네디 정권은 61년 비에케스 주민을 모두 섬 밖으로 이주시켜 전 토지를 기지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묘지까지 전부 파헤쳐 이전한다는 계획이었으므로 드라큐라작전으로 불렸다.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푸에르토리코 지사가 워싱턴까지 가서 계획의 중지를 요구함으로써, 결국 이 계획은 실시되지 않았다.

미술가 아네스토 페냐(55)는 자택 옥상에서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다. 기지 철조망 앞에서, 플라스틱 수갑을 찬 양 팔이 평화의 상징인 하얀 비둘기를 잡고자 애쓰고 있다. 비둘기 뒤에는 비에케스의 섬이 있다. 일부 철조망은 주민의 손에 의해 잘려져 있다.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푸에르토리코는 1898년의 미서전쟁 결과 미군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푸에르토리코가 103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페냐는 그 자신도 미군시설 불법 침입죄로 여러번 체포당했다. 최근에는 2001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90일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 플라스틱 수갑은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조여든다고 말한다.

섬의 가장 높은 언덕에는, 지금은 박물관이 된 스페인 통치 시대의 성곽이 있다. 페냐의 자택은 그 앞에 있다. 페냐는 2002년 2월 이 박물관 포토 콘데 미라솔에서 개인전을 열고, 감옥에서 그린 작품 130점을 전시했다. 개인전의 주제는 시민 불복종의 역사다. 환경주의자인 변호사 로버트 케네디 2세 등 미군훈련 반대운동을 하다 체포된 지도급 인사 98명의 얼굴 그림이며 데비드 사네스의 머리에 폭탄이 떨어진 순간을 그린 그림도 있다. 그림은 모두 갈색의 종이봉투에 그렸다.

페냐는 2년 반 동안 미군으로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에 끌려, 미군 훈련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베트남전쟁에 끌려갔을 때는, 가족을 남겨두고 전쟁터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화가 났다. 그러나 같은 미국시민으로써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때 내 아이가 태어난 지 1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당시의 복잡한 심정을 회상하면서, 조금 화난 얼굴로 이야기했다.

여기는 식민지이다. 푸에르토리코에도 헌법이 있지만, 미국의 연방법이 우선한다. 미군의 머리 속에는 전쟁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군과는 다른 싸움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에케스의 지도자들은 저항운동의 기본을 비폭력에 두고, 이를 시민적 불복종이라고 부른다.

훈련 중 열화우라늄 탄을 투하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걸프전 때 미군이 사용한 적이 있는 열화우라늄 탄이 99년 2월, 비에케스 훈련에서도 사용되었다. 열화우라늄 탄의 사용은 미국 법으로도 엄격히 규제되며, 전투 시나 당국이 인정하는 실험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어부들이 폭격 훈련장에서 전차의 뚫린 둥그런 구멍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어부들은 해상에서 시설 안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미군의 행동을 감시했다.

전차는 사격의 표적으로 사용되었다. 탄흔으로 보이는 구멍은 바른 원 모양으로, 탄이 두꺼운 장갑을 쉽게 관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멍 주변은 열로 녹아있었다. 어부들은, 반미군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비에케스 구원위원회(CRDV)에 현장 사진을 들고 갔다. 열화우라늄탄과 탄흔의 사진을 입수한 단체 활동가들은 똑 같은 것이 사용되었음을 확신하였다.

단체의 중심회원인 닐다 메디나(44)는 미국 본토에서는 할 수 없는, 모든 전쟁 훈련을 비에케스에서 멋대로 하고 있다고 분노하였다. 그러나 미군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열화우라늄탄의 사용을 부인했다.

비에케스 주민에게 다행스럽게도 군의 환경오염 책임을 추궁하는 군유해물질계획(MTP)이라고 하는 비정부기구 대표인 다라 소튼이 시민단체의 입장에 함께 해주었다. 소튼의 노력으로, 미 국방부 열화우라늄탄 연구팀의 전 대표이면서, 미군시설의 환경정화문제에도 정통한 더글라스 로케박사가 섬을 방문했다. 박사는 탄흔을 보고, 열화우라늄탄의 사용을 단언했다.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결정적 근거는, 소튼이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입수한 미군의 열화우라늄탄 사용을 뒷바침하는 자료였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들이대자 미군은 99년 5월 말, 말을 바꿔 사실을 인정했다.

발표에 의하면, 해병대의 해리어 공격기가 99년 2월 263발의 열화우라늄탄을 실수로 투하했다.

지방 신문 비에케스 타임즈의 발행인인 찰리 콘리(69)는 미군의 설명이 완전히 엉터리라고 코웃음을 쳤다. 해병대는 미국 본토에서 실수로 열화우라늄탄을 실고, 실수로 263발이나 투하했다고 말한다.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진 비에케스에 실수로 투하한 것이다. 200발 이상의 탄을 실수로 제트기에 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동안 즐고 있었던 것인가? 비에케스는 동서로 좁고 긴 섬이다. 동쪽 끝의 연습장 바다에서부터 200발이나 떨어뜨렸다면, 그 동안 비에케스를 벌써 지나쳐 버렸을 것이다.

문제가 분명해 지자 미 당국의 전문가 팀이 조사, 회수에 나섰지만, 결국 회수한 것은 57발 뿐이었다. 콘리는 말한다.

전문가팀은 달에 갈 때 입는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작업을 하였지만, 고용된 주민들은 티셔츠나 평상복 차림이었다. 파헤치면 자꾸자꾸 나오니까, 무서워서 조금만 들고 돌아갔다. 열화우라늄탄은 전차 장갑을 관통하여, 안에서 폭발한다. 전차 안에 있는 물질이 타서 기화하여,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날아다닌다.

주민은 열화우라늄탄의 방사능이 섬을 오염시키고, 주민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

다고 호소했다. 미군은 주민 건강과 자연환경에 위협을 끼치는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 후, 네이팜탄과 화학무기의 사용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발암률이 높은 비에케스

97년, 푸에르토리코 후생성은 비에케스의 암 발병율이 푸에르토리코 본섬과 비교해서 27%나 높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비에케스의 암 발병율(5년마다)은 70 ~ 74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80 ~ 84년에는 푸에르토리코를 능가하고, 그 후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70년대 전반은 베트남전쟁이 심각해진 때로, 가까운 클리브라 섬에서 실시되던 훈련이 72년에 주민의 반대로 비에케스로 옮겨진 시기와 일치한다.

비에케스에서 50년대는 상륙연습이 중심이었지만, 60년대부터 폭격연습이 강화되었으며 거기에 클리브라의 훈련이 옮겨와 폭격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푸에르토리코 대학 공중위생학부의 조사는 착탄지에서 열화우라늄탄을 검출한 것을 비롯해, 주거지역에서도 수은, 납 등의 중금속, 비소 등의 유해물질, 발암성의 질소탄화물들을 검출하였다.

같은 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역학 전문가인 현지 의사 리베라 카스타노 라파엘(68)은 비에케스의 암 발병율이 이상하게 높은 것은, 틀림없이 미 해군의 폭격훈련 탓이라고 자료를 보여 주면서 설명했다. 라파엘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비에케스에 돌아와 보니 암환자가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라파엘이 비에케스에 돌아오기 2년 전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 아는 사람 중에는 유방암에 걸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람도 있었다. 점차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는 아는 개업의사를 찾아가 보니, 과연 그대로다. 비에케스에는 암환자가 많다고 말한다.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산환에서 일한 적이 있던 의사는 산환의 병원에서는 암이 해마다 5건 정도였지만, 비에케스에서는 한 달에 1 ~ 2건 정도라고 말했다. 푸에르토리코 당국도 97년에 라파엘의 직감을 뒷받침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라파엘에 의하면, 암은 발암물질과 접촉해서부터 약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발병한다. 암 발병율이 상승한 75 ~ 79년 사이의 환자는 적어도 10년 전에 발암물질과 접촉했을 것이며, 마침 60년대는 비에케스의 폭격훈련이 한창일 때였다. 푸에르토리코 본섬의 암 발병율이 상승한 80 ~ 84년의 10년 전이면, 클리브라의 폭격연습이 옮겨온 시기이다. 85 ~ 89년의 수치는 역학 상 주의가 요구되는 경고수준을 이미 지나, 바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수준이다.

암 사망률도 비에케스에서는 푸에르토리코의 어느 지역보다 높다. 95년 조사에서는, 1만 명당 암 사망율이, 푸에르토리코 전체로는 121.3명인데 비해 비에케스에서는 169.7명으로 약 1.4배에 이른다. 비에케스의 수치는, 이전에 폭격 연습장이 있었던 클리브라(126.3명), 예전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었고 방사능오염이 염려되었던 푸에르토리코 북서부의 마을 린콘(117.7명), 수도 산환에서 가까운 공장오염이 심한 가타뇨(111.3명)보다도 높다. 암 뿐만 아니라, 소아 기관지천식 등 다른 병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미군 연습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같은 많은 이상한 병은 그 원인이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에 있다고 라파엘은 판단한다.

가족 전원의 몸에서 유해물질 검출

미군은 폭격훈련이 높은 암 발병율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훈련과 건강피해의 관련성을 부인한다. 비에케스신문의 발행자인 찰리 콘리의 아내이고 예술가인 밀나 파간(66)은 2000년 5월 4일 체포된 주민 200여명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그는 미군의 환경 오염과 파괴를 강력히 비판한다.

해군은 오염은 없으며 폭탄도 모의탄이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탄이 실탄인가 모의탄인가는 상관없다. 문제는 유해물질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콘리는 미국 본토의 민간연구소에 자신의 혈액을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 혈액에서 비소, 납, 알루미늄이 검출되었다. 추가 조사에서는 파간과 아이들 3명, 손자 5명의 가족 전원의 체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콘리는 한가족이 이러하데,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음식을 먹는 비에케스 사람들의 상태는 쉽게 상상이 간다. 이 섬의 음식은 유해물질이 축적되어, 암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주민들은 해군의 폭격훈련장이 다름아닌 오염원이라고 생각한다.

라파엘에 의하면 가장 일반적인 오염 경로는, 피어오르는 착탄지의 먼지가루가 바람에 날려 주거지역까지 옮겨지고, 이것을 흡입해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식수는 푸에르토리코 본섬에서 해저 터널로 보내지지만, 주민들은 빗물이나 우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착탄지에서 가까운 하천은 바다로 흘러가고, 생선에서는 수은이 검출된다.

파간은 생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텃밭에서 자란 야채도, 먹기가 두렵다고 호소한다. 푸에르토리코 대학의 조사는 실제로 주거지역의 식물이 납이나 카드뮴, 마그네슘 등의 금속에 오염되어 있음을 밝혔다. 미 환경보호국도 70년대의 조사에서, 토양과 대기의 오염을 지적했다.

섬을 차로 안내하는 도중, 수업을 끝낸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떠들석한 소리와 함께 뛰어 나오고 있었다. 파간은 혼자소리로 말하였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일이 아니다. 조금씩,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환경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간다.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총명한 아이들이 점차 눈빛을 잃고,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아이들로 변해가고 있다.

파간은 섬의 미래를 잃어준 아이들의 미래조차 무너뜨리는 환경오염의 공포를 슬픈 얼굴로 말한 뒤, 한참 입을 단았다.

번역 | 이명주

◆평화교실◆

미국의 거대 군수산업(1)

이 글은 『미국의 거대군수산업』(히로세 타카시 지음, 2001년 발행)의 서장을 번역한 것이다. 몇 차례로 나누어 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서장 : 수수께끼의 나라 미국

21세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도 미국의 기술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이고 지구상의 많은 부가 북미대륙에 집중됐다. 한편 미국은 자국 군대를 전세계에 배치하고, 미국의 군수산업은 무기를 세계에 수출하였다. 그런데 1989년 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대립이 종식되자 군수산업은 눈 녹듯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세계의 주요한 군수산업이 대통합하게 된 것은 그 반작용이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그 의미를 따져보지 못하고 체계적인 분석자료도 나오지 않은 채 20세기가 지나갔다.

군사전문가들과 현지 분쟁을 취재한 기자들은 이들 군수산업의 무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 없이 증오의 범죄가 세계적으로 범람하고 민족적 대결의식이 달아오르며 곳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식의 논조만을 유포시켰다. 그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원인인 양 착각한 사람들은 그 동안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다른 민족에 대한 증오를 더욱 키우며 무기를 들고 속속 분쟁으로 달려갔다.

분쟁은 복싱이나 레슬링과 같이 맨손으로 하는 격투기와는 다르다. 미영불의 군대가 이라크 영토를 공격한 1991년의 걸프전쟁에서는 전투기와 폭격기가 주민들을 공습하고 각종 무기의 전시장 같이 모든 무기가 동원되었으며 포탄과 미사일이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유고의 살육은 처음에는 권총과 소총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듬해 99년 3월에는 나토군의 일방적인 폭격과 함께 잔혹한 전쟁으로 바뀌었으며 엄청난 양의 순항미사일은 밤하늘을 화염에 휩싸이게 하였다.

2000년 9월 28일에는 이스라엘의 우파인 리쿠드당의 아리엘 샤론 당수가 동예루살렘 옛 시가지에 있는 이슬람 성지인 ꡐ신전의 언덕ꡑ을 방문하는 도발을 저지르자 팔레스타인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이스라엘의 치안부대가 팔레스타인에게 발포함으로써 격렬한 대결이 재연되어 중동평화가 깨졌다. 이후 한달 만에 126명이 죽고 거기에는 수많은 미국 무기가 사용되었다. 다음 해인 2001년 3월 수상이 된 샤론은 전 국방부장관인 무기상 마커스 가트를 후원자로 하는 흑막에 싸인 국제무기거래를 하였다. 그는 82년에 백악관의 이란 콘트라 무기밀매사건의 배후인 세계 최대의 무기상 애드난 카쇼기 일파로서 일하였다.

샤론의 성지 방문은 팔레스타인에게는 모욕을 넘어 생계터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했다. 예루

살렘의 옛 시가지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을 떠오르게 할 정도로 재미있는 마을로,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바자르(노천시장)는 북적거린다. 옛 성 안쪽은 미로처럼 복잡한데 한창 더운 여름에도 서늘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돌로 된 주거지다. 아이들이 뛰놀고 여행객들도 즐거워 하는 곳이다. 바로 이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침입하여 아주 먼 옛날의 통곡의 벽을 유대인의 성지라 우기며 아랍인을 속속 폭력으로 추방하였다. 거기에 추종하는 샤론의 행위는 팔레스타인은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선언과 같았다. 유엔의 인권고등판무관 메어리 로빈슨은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지고 이스라엘이 정착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 팔레스타인은 매일 모욕을 당하고 더 참을 수 없는 상태다며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을 격렬히 비난했다. 그녀는 많은 민간인들을 죽인 나토의 유고 공격도 비판하였다.

종교가 예루살렘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예루살렘은 오랜 옛날부터 이슬람교도와 그리스도교도와 유대교도가 함께 살아온 마을이다. 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인과 아메리카인이 자신들이 저지른 유대인 박해라고 하는 죄의 대가로서 무책임하게도 아랍인의 거주지역을 새로운 유대인의 나라로 만들고 그로 인해 아랍인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난 데서 발단되었다.

샤론에 의해 촉발된 분쟁이 1개월 정도 지난 뒤인 1월 6일 현지 예루살렘 신문은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이스라엘의 몇 개 군수회사와 2억 달러 어치의 거래에 서명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스라엘 공군이 록히드마틴의 F16 제트전투기를 구입한 데 대한 절충교역 차원의 투자였다. 록히드 마틴은 록히드의 제트비행기에 이스라엘의 기술이 결합되면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스라엘 공군이 F16을 더 많이 구입하게 되면 투자액을 15억 달러로 늘릴 수 있다. 우리 회사는 몇 년에 걸쳐 이스라엘 방위산업의 주요한 전략적 파트너였다고 발표하였다.

중동의 분쟁은 진흙탕으로 변하고 이스라엘인은 맨손의 팔레스타인들에게 총 쏘기를 멈추지 않았다. 분쟁의 와중에 세계 최대의 군수산업 록히드 마틴은 왜 이스라엘 군수회사들에 대한 막대한 자금원조 계약을 맺었을까? 권총이나 소총, 기관총, 카빈총, 견착식 미사일 등의 살상무기는 어디서 분쟁 현지로 공급되고 있을까?

콜트 인터스트리라는 회사가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먼 옛날 할리우드 서부극에 나오는 콜트 45 6연발 권총의 활약상 속에서다. 윈체스터 총이나 레밍턴 총도 마찬가지다. 비정한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스미스 앤드 왓슨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아라이엔드 텍시스템이라는 회사는 거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

권총과 라이플총을 만들고 위험물을 전장에 공급해 온 것은 바로 이들 소화기 제조회사들이다. 이들 무기를 뒤에서 중개하고 있다고 비판 받는 미 전국총기협회는 총포의 규제에 곤란한 처지에 몰리자 총은 다른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총은 자신을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있다고 정면으로 맞받으며 정의를 위한 호신론을 폈다. 또 그들은 4H클럽(농촌 청소년조직)이나 보이스카우트를 이용하여 일상적인 사격훈련이나 경연대회를 젊은이들을 상대로 여는 한편 총포나 탄약 공급을 전세계의 분쟁지로 확산시켰다.

그러나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은 대체 누구일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의 남자들이라면 보통 테러리스트나 총기광, 마약밀매꾼 등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데이비드 제레미아라는 남자는 1934년에 오레곤주 포트랜드에서 자란 뒤 해군에 들어가 1971년부터 국방부의 분석가가 되었으며 이후 해군부대의 계획 작성 책임자를 거쳐 구축함 소부대의 사령관, 태평양함대의 간부를 역임하고 해군작전부장의 오른팔이 되었다. 이어서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미국 최대의 해군기지에서 지휘를 맡아 84년부터 86년까지 순양함과 구축함을 이끌었고 87년부터는 태평양함대 사령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차지할 정도로 출세했다.

90년에는 미군 전투부대의 제2인자인 합참 부의장에 올랐다. 국방부(펜타곤)에 있는 합참본부는 육해공군의 참모본부장(사령관)과 해병대 사령관, 곧 각 군의 최고책임자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국방장관 및 부장관과 함께 작전을 결정하는 최고 기관이다. 이들과 합참 의장 및 부의장을 합쳐 8인 합동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가 부의장에 오른 지 5개월 뒤인 90년 8월에 일어난 것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미국으로서는 오래 동안 기다려마지 않던 긴급사태였다.

제레미아는 여기서 합참 의장 콜린 파월(2001년에 집권한 부시정권의 국무장관)과 함께 걸프전쟁을 지휘하고 이라크군을 멋지게 패퇴시킨 일로 미군의 영웅이 되었다. 이정도가 미국의 인명사전 Whos Who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공식적인 경력이다.

그러나 그는 합참을 94년에 퇴임한 뒤 해군에 군함을 납품하는 거대군수회사의 하나인 리튼 인터스트리즈사의 이사로 등장한다. 리튼은 순양함과 구축함을 건조하는 회사인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89년에는 미 전국군수회사 가운데 국방부 수주액 순위에서 15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제레미아가 이사가 된 뒤로 98년에는 수주액 순위가 8위로 뛰어올랐다. 이어서 24위의 에이브넬 인터스트리즈를 매수하고 군함 부문을 보강하였다. 제레미아는 이전에 노퍽 해군기지에서 순양함과 구축함을 지휘하였는데 이제는 리튼 에이브넬의 조선소에서 이들 군함의 제조 현장을 직접 지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이 때 제레미아는 아라이앤드 텍시시스템사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스탠다드 미사일사의 이사이기도 하였다.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회사들에서 전 펜타곤 간부는 무슨 일을 하였을까?

아라이앤드 텍시시스템은 걸프전쟁 직전인 90년에 하네웰의 군수부문에서 일하던 사원이 만든 회사로 89년에는 없었다. 일종의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아라이앤드가 미사일 등으로 매출을 쑥쑥 늘리고 97년에는 모토롤라의 군사용 고성능신관센서 기술을 매수하여 일렉트로닉스 제어기술을 강화하면서 98년에는 펜타곤의 수주액 순위 34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아라이앤드의 특징은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의 주력인 군용기 제조와는 다르다. 총기류나 탄약 등의 재래식무기 분야에서 펜타곤의 최대 공급자로 성장한 것이다.

제레미아가 근무했던 국방부 합참과의 계약 수주만이 아라이앤드 텍시시스템의 위험한 사업은 아니었다. 무기수출액 상위 기업으로 보면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인 93 ~ 95년 3년간 이 회사의 무기수출 합계액은 상위 10대 기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총기제조 회사는

52개국에 총기를 판매하는데 성공했는데 M16소총이나 기관총처럼 쓰는 방법을 한번 익히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총기가 범람하게 되었다. 각각 몇 천, 몇 만 명이 살해된 그라나다, 아이티, 레바논, 파나마, 소말리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우간다, 자이레 등에 판매된 M16은 7백만 정을 넘는다.

분쟁지역을 보면 부족끼리, 민족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미국제 소총이나 기관총이 옛 소련이나 기타 선진국의 총포와 대결하고 있다. 소총을 입수한 소말리아에서 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분쟁을 진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대규모의 유엔 PKO(평화유지군)를 파견하였다.

특히 최근, 펜타곤이 아라이엔드와 수주계약을 맺은 개인살상용 무기 즉 소총탄환을 발사하면 적의 머리 위에 강력한 폭발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목표유도 개인전투무기(OICW) 개발은 군인들에 의해 위험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동시에 아라이엔드는 그 소총을 지구상에 확산시키기 위해 외국과 새로운 판매 교섭에 돌입하였다. 폴 밀러는 99년부터 바로 이 아라이엔드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되었는데 그에 앞서서 미국 해군의 대서양함대사령관으로서 제레미아와 행동을 함께 하였고 나토 대서양연합최고사령관으로 재직하였다. 그리고 제레미아와 같이 리튼 인더스트리즈의 조선 부문 리튼 마린의 이사를 겸직하였다.

분쟁지역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가장 참혹한 피해를 안겨주는 것이 대인지뢰인데 이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한 회사가 바로 이 아라이엔드 텍시스템이다. 이 회사는 두꺼운 장갑을 뚫는 열화우라늄탄을 이용한 소형,대형의 전차 공격용 탄두를 제조하는 회사이기도 하다. 91년 걸프전쟁, 99년 나토군의 유고 공격 뒤 이라크와 유고 주민 그리고 각국 군인들 사이에 퍼졌던 걸프전 증후군발칸 증후군으로 불리는 열화우라늄탄의 후유증은 심각하였다.

전 함참 부의장 제레미아가 이사를 겸하였던 스탠다드미사일도 98년에는 펜타곤의 수주액 순위 23위에 올랐다. 98년에 3위의 레이시온이 이 회사를 매수하였는데 4개 회사의 공격용 무기 부문을 통합하여 거대한 미사일 제조회사가 되었다. 해군은 광섬유를 사용하여 유도하는 미사일을 포함하여 이지스함의 고성능 전투시스템 등 수많은 스탠더드 미사일제품을 차례차례 발주하였다.

권총으로 유명한 콜트 인더스트리즈는 이제 서부극에서나 등장하는 영웅이 아니다. 전미총기협회의 3백만 회원으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회사다.

한국전쟁 때 유엔군을 지휘한 것은 유명한 리지웨이 장군이다. 그는 50년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 제8군을 지휘하던 윌튼 워커장군이 전사하자 대신 사령관이 되었다.

한반도에서는 중국 의용군이 북한으로 진군해 오며 따라 미군은 차츰 밀려나 패배의 위기에 빠졌다. 그런데 리지웨이가 지휘관이 되자마자 중국 의용군을 북위 38도선까지 밀어냄으로써 개전 전의 팽팽한 전황으로 되돌아가고 그는 미군의 두뇌로 높이 평가되었다. 바로 그 무렵 51년 3월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트루만 대통령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맥아더는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해 중국을 침공한다는 성명서를 대통령의 승인 없이 발표하였다. 이 같은 전황에 분노한 트루만은 맥아더를 해임하고 리지웨이를 그 후임에 임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리지웨이는 4월부터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일본 점령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최고사령관과 미국 극동군 총사령관에도 취임하였다.

52년 4월 28일 미일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이 발효되고 GHQ가 폐지되자 리지웨이는 불과 3년전에 발족한 나토군 최고사령관으로 부임하였으며 나토를 거대한 군사조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53년 귀국해 육군참모총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당시 국방장관이던 찰스 윌슨에게 지금부터 핵무기를 주력으로 하고 재래식 무기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야전 전투부대를 해체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 리지웨이는 군사예산의 삭감과 핵무기우선정책을 격렬히 반대하였으며 아이젠하워 대통령과도 대립하였다. 그 때문에 55년 임기 전에 요직을 박차고 물러났으며 벨론 산업연구소의 이사장을 맡아 산업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베트남전쟁이 치열하였던 68년의 일이다. 리지웨이는 존슨 대통령에게 베트남전략에 대해서 충고하는 저명한 군인 및 지식인 집단의 지도적 위치에서 전력의 증강이나 폭격의 강화는 별 효과가 없다고 말해 백전노장으로서의 정확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 군사비의 축소를 반대하는 말을 계속 했다. 그는 91년 걸프전쟁의 영웅인 합참 의장 콜린 파월로부터 여러 해 동안 육군에 대한 기여를 기리는 국회 메달을 수여받았으며 그 2년 뒤 펜실버니아주 피츠버그의 자택에서 98세로 죽었다. 그는 군대를 마음으로 사랑한 철두철미한 군인으로서 미국의 실전부대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를 총명하고 고집스런 군인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총기를 범람시킨 콜트 인터스트리즈의 이사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이름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다. GHQ 총사령관을 퇴임한 51년부터 55년까지 레밍턴 총을 제작하는 레밍턴 랜드회장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의 이름을 지워버릴 수 없듯이.

펜타곤은 총포에서 미사일, 군함,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무기와 장비의 국내 제조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분쟁지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대조직이다.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백악관 인사들이 바로 그 자금의 수혜자들이다.

난민들이 세계 도처에 넘쳐있다. 원인은 지역분쟁에 있다. 거기에 총포와 탄환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다. 어디서인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로부터다. 망가지고 짓밟힌 난민들을 지원하는 수송기도 바로 그들 군수회사 제품이다. 가공할 구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분쟁을 겪는 아프리카 나라들은 탄약을 양산할 능력이 없다. 왜 민족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분쟁 현지에서 사용되는 무기와 장비의 브랜드 명을 먼저 보지 못하는가? 왜 유엔은 한번도 그것을 논의하지 않는가? 다음 장들에서는 전쟁 도구가 미국 군수산업에 의해 어떻게 교묘하게 보급되는가를 세계적 사실에 의거하여 살펴보겠다.

◆토론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의 법적 문제점과 불평등성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
장 주 영

1. 용산기지이전각서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

한미 간에 최초로 용산기지의 이전에 관한 합의를 본 것은 1990년이였다. 1990. 6. 25.에 서울 도심지 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합의각서(MOA)와 서울 도심지 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양해각서(MOU)(이하 용산기지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합하여 용산기지이전각서라 함)가 체결되었다. 위 이전각서는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모든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극히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위 이전각서에 따르면 1996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미국의 과도한 이전비용 요구와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의 탈퇴가 맞물리면서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그 후 2003. 5. 한미정상회담에서 용산기지의 재배치에 합의함으로써 용산기지이전협상이 재개되었다. 미국은 1990년의 용산기지이전각서를 기초로 이전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990년의 용산기지이전각서는 그동안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2003. 10.에야 공개되었다. 이하에서는 유효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1990년의 이전각서에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국이 2003년에 제시한 용산기지이전에 관한 협정 초안의 법적인 문제점과 불평등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2. 용산기지이전각서와 미국측 협정초안의 내용

가. 1990년의 용산기지이전각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이상훈과 주한미군사령관 메네트레이는 1990. 6. 25. 용산기지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1991년 안기부가 작성한 용산미군기지 이전 관련 대책에 의하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공여하는 협정의 서명은 합동위원회를 통해 양측 대표인 외무부 미주국장과 주한미군부사령관이 서명해야 하나 협의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서명하였다고 한다.

합의각서에 의하면 한미SOFA(이하 주둔군지위협정이라 함)와 한미간의 미군부대이전에 관한 합의를 근거로 주한미군사령부를 서울 도심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담고 있다. 부대의 이전은 1996년말을 목표로 하고 주한미군사를 오산-평택지역으로 이전 하되, 일부 부대는 용산에 잔류한다. 국방부는 건축, 안전 상의 미국기준을 충족하고 미국요원의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토지와 대체시설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사의 이전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며, 수입손실에 대한 금전보상을 한다.

합의각서와 함께 서명된 양해각서는 합의각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한국이 건축하는 미군부대의 시설물에 대한 미국의 건축기준과 안전기준, 미육군성 공간기준 등을 밝히고 있다. 경비부담에 있어서도 한국정부에 의해 건축되고 제공되는 시설물에 대해 미측은 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한국정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모든 주한미군사 요원/고용인들의 이사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전기간 중에 발생하는 미군의 사기,복지,휴양활동 수입 및 투자분의 손실에 대해 한국의 국방부가 금전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03년의 미국측 협정 초안

미국은 용산기지이전에 관한 협상이 재개된 이후 2003. 9. 미러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 회의에서 용산기지이전에 관한 협정초안과 이행협정초안(이하 협정)을 제시하였다. 두 협정은 주둔군지위협정과 1990년에 체결된 용산기지이전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전협정은 양측의 합동위원회 대표와 한국 국방부장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하고 이행협정은 합동위원회 양측 대표 및 용산기지이전 임시소위원회 양측 대표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이전협정을 보면 한국은 부지와 대체시설들, 주한미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제공하고 이전완료 목표일은 2006. 12. 31.로 하며, 2004. 6. 30.까지 협정을 이행하는 데 충분한 부지가 미국에 양도된다. 두 나라는 부대이전을 위한 포괄적인 종합계획(Master Plan)을 개발하며 여기에는 새롭고 변경된 건물들, 각종 설비들, 도로와 토지, 사령부의 통신 컴퓨터와 정보 인프라가 포함된다.

이전협정은 용산기지이전합의각서와 비교해 볼 때 주한미군사령부의 통신컴퓨터와 정보인프라의 제공이 추가되어 있다. 또 1990년의 이전각서에는 토지소요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이전협정초안에는 그 내용은 사라지고 오히려 협정이행을 위한 충분한 부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이행협정은 이전협정과는 달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주한미군 임무와 기능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토지와 대체 시설들은 한국이 제공할 것이며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필요한 시설들은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지역에 따라 결정된다. 필요 시설들은 미 국방부 기준에 따라 건설되며, 필요한 시설에는 본부, 행정국, 의료시설 지원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들, 포장도로, 조경, 담장 ..., 그러나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이행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조달 및 용역을 제공한다. 비용에는 각종 서비스, 모든 주한미군직원들의 개별 이사 비용, 계약과기비용을 포함하여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이행협정에는 용산기지이전 양해각서와는 달리 기지이전에 필요한 시설들은 현재의 시설규모가 아닌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지역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3. 용산기지이전각서가 유효한 협정인가?

미국은 용산기지이전각서에 한국의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하였고 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해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사후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합동위원회가 체결한 협정의 효력

(1) 합동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설치되었다. (주둔군지위협정 제28조 제1항 전문)

합동위원회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주둔군지위협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협정의 시행을 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위원회가 다룰 권한이 없음이 규정자체에 의해 명백하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사용에 소요되는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 역할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이는 합동위원회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위 규정에 의해 합동위원회의 역할이나 권한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합동위원회가 협의(consultation)기관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할 권한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 설령 합동위원회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위원회는 이 문제를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그 이상의 검토를 강구하기 위하여 각기 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통해 어떤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협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동위원회는 주둔군지위협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즉 협정의 시행에 관한 절차적인 혹은 세부적인 사항만을 협의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그 범위를 넘어 국가 간에 유효한 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2) 국가 간에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가) 조약의 체결권자

우리 나라의 경우 조약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체결,비준한다. (헌법 제73조, 제89조)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및 특명전권공사인 대한민국재외공관장, 대통령과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은 정부대표로서 조약에 서명할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조약에 서명할 권한이 없다.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함)에 의하면 국가 간에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외무부장관, 외교공관장에게 있고 그 외에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 전권위임장을 가진 사람에게 있다. 권한없는 자가 체결한 조약은 그 국가에 의하여 추후 확인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나) 용산기지이전각서의 서명자

용산기지이전각서는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하였고, 그로부터 1년 가량이 지난 1991. 5. 20.에 외무부 반기문 미주국장은 주한미군 부사령관 포글만의 강요에 의해 위 각서가 한미합동위원회의 합의로서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합동위원회 합의인정을 위한 권고문(이하 권고문이라 함)에 서명하였다. 90년 당시의 안기부 문건에 의하면 포글만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1991. 5. 13. 외무부 미주국장을 방문하여 외무부내에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는데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고면서 미군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동 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고 반국장은 서명을 거절하다가 미군측의 반발을 의식하여 5. 20. 서명하였다고 한다.

(3) 권한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용산기지이전각서는 무효

용산기지이전각서에 서명한 국방부장관은 본래 국가 간에 유효한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위 각서를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국방부장관은 위 각서를 체결할 권한이 없다. 또한 용산기지이전각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권고문에 서명한 외무부 미주국장은 권한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각서의 효력을 사후에 추인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권고문에 의해 각서의 효력이 사후에 추인될 수 없다. 국방부장관이 체결한 용산기지이전각서는 국가책임을 수반하는 조약이 아닌 기관 간 약정 혹은 기관간 내부합의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용산기지이전각서는 권한없는 자에 의해 체결되었고 사후에 합법적으로 추인된 바도 없으므로 국가간의 유효한 합의가 될 수 없다.

나.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각서의 효력

(1)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국회동의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 (헌법 제60조 제1항)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2) 용산기지이전각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다.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대체토지의 획득과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의 건축, 이전비용, 손실보상, 청구권보상에 이르기까지 용산기지의 이전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30억-50억(약 3조 6천억 원- 6조 원)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변화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2004년도 정부예산안의 전체 증가액은 6조 원, 대폭 증액된 국방예산안의 증가액이 1조 4264억원이라는 점에서 볼 때 천문학적인 액수가 아닐 수 없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용산기지이전각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각서는 무효다. 주둔군지위협정도 국회의 동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 협정 제5조 주한미군경비부담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과 LPP협정도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점 등에서 비취볼 때 미국도 한국정부에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위 각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이전각서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체결되지 않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무부 미주국장으로부터 위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강압적으로 받으려고 하였을 것이다. 비엔나협약에 의하더라도 위 이전각서는 조약체결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우리 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무효가 아닐 수 없다.

4.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배치되는 용산기지의 이전목적

용산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전세계적인 미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을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대북억지력 이외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동북아 신속대응군으로 변화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주한미군을 첨단화, 경량화한 기동군으로 전환하여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까지 활동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

2003. 11. 한미 간의 제35차 연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 성명은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성격이 한반도 전쟁억지력으로 기능하는 것 이외에 유사시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지역군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협에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미국 영토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대응도 가능하나 통상 미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상정하기 어렵다. 주둔군지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영토내에 주둔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신속대응군

혹은 지역군으로서 한국에 대한 공격이 아닌 다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 출동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게 된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에 관련이 없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분쟁에 말려들어 갈 이유가 없다. 용산기지의 이전과 주한미군의 재배치로 인하여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직접 관계없는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혹은 그 이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게 되는 것이다.

이행협정에는 기지이전에 필요한 시설들은 현재의 시설규모가 아닌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지역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임무와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하는 미군부대의 새로운 임무와 기능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전략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역할변경과 관련된 용산기지의 이전과 비용부담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의 범주가 아닌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5. 주둔군지위협정과 모순되는 용산기지이전협정

가. 합동위원회에 의한 협정체결의 문제

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하면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도 양 정부가 체결 하되 합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협의기관에 불과한 합동위원회가 국가 간에 유효한 용산기지이전협정이나 이행협정을 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비용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용산기지이전협정만 국회의 동의를 받고 한국의 비용부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는 용산기지이행협정은 서명권자를 합동위원회의 대표로 기재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합동위원회의 서명으로 끝내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는 이행협정내용을 이전협정에 모두 포함하여 적법한 조약체결권자에 의한 서명을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 비용부담의 불평등성

(1) 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하면 한국은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공여하며 시설과 구역에는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주한미군은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는 당초 건물의 개조 또는 철거(이전) 및 새로운 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이 포함된다. 그리고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 위 조항에 따라 미군은 자신들의 부담으로 부대내 건물의 신축과 증개축을 해왔다.

그런데 용산기지이전각서와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이행협정을 보면 한국정부가 토지를 무상

으로 공여하는 것 외에 각종 건축물과 시설물을 한국정부의 부담으로 신축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주둔군지위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청구권도 한국정부가 책임지도록 합의하고 있다. 또한 미군부대의 이전과 관련된 모든 이사비용과 손실보상까지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등 불평등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주둔군지위협정내용과도 배치되고 있다. 이전협정과 이행협정에는 용산기지이전각서에는 없는 주한미군사령부의 통신컴퓨터와 정보인프라의 제공이 추가되어 있고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에 필요한 시설과 지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측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시설물의 건축기준과 안전기준, 공간기준은 미국방부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어 한국의 비용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래 한,미동맹 6차 회의에서 이전비용의 무제한지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설공사와 정에서 단계별로 감독하는 장치를 마련하였고 현금지원비율은 10%미만이며 대부분은 현물(물자 및 용역)지원이기 때문에 이전비용지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사안별 이전비 집행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건설자재를 한국에서 조달하자는 제의도 수용하지 않았으며, 시공 및 감리 전반을 한국이 직접 검증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미국측은 양국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기준에 따르지만 미군 독자시설은 미 국방부 기준에 따라 자재구입과 설계,시공을 하고 비용집행에서도 재량권을 갖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측의 완강한 입장을 감안해 볼 때 단계별로 어떻게 비용지출을 감독하는 것인지, 그 비용지출통제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다 확실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비용지출에 대한 통제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용산기지이전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이전을 먼저 요구한 측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용산기지는 한국이 먼저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전비용전액을 한국이 부담하고 주한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한다고 한다. 그러나 용산기지이전이 미국의 전세계적인 미군재배치전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국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과연 미국이 용산기지이전각서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것처럼 주한 미2사단의 각종 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할 것인지는 극히 의문이다. 특히 앞으로 미 2사단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는데 용산의 미군부대가 한국정부의 비용으로 만든 완벽하고 안전하며 유용한 시설이 포함된 기지로 이전한 후 미2사단이 대부분 철수하거나 일부 이전한다 하더라도, 용산미군부대의 일부가 철수하고 비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미국이 미2사단의 이전과 관련하여 지출할 비용은 이사비용 외에는 거의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용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제공할 각종 토지와 시설물들이 용산의 미군부대가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이전하게 될 미 2사단이 사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6.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새롭고 대등한 한미관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용산기지이전각서는 국가간에 유효한 합의를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합동위원회나 한

국정부의 국방부장관이 체결하였고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국가 간의 조약으로서 효력이 없다. 위 각서는 한국정부가 이전과 관련하여 천문학적인 비용을 일방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불평등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어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그런데도 용산기지이전 각서의 내용을 기초로 다시 한미 간에 용산기지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미간에 용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체결된 각서와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협상내용에 대한 국민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원래 불평등한 내용 중 일부 사소한 내용이 바뀌었다 해서, 또는 표현만 바꾸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마치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처럼 국민을 속여서도 안될 것이다. 매년 엄청난 금액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주한미군에게 지불하는 것 외에 막대한 기지이전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전협정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용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과거에 체결한 협정이나 각서가 무효이거나 그 내용이 불평등하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협상을 통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내용의 협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자주의식에 부응하고 진정으로 한미우호관계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투쟁현장에서◆

밑바닥 여론은 우리가 책임진다.

굴욕적인 용산협상 중단과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각 지역 실천현장에서

◆미군 관련된 거는 무조건 서명하고 봐야 돼

서울평통사 3차 캠페인은 인사동 입구에서 열렸습니다.

5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두시간 동안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750명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고, 33,000원의 모금도 되었습니다

좁은 인도였지만, 시민분들의 호응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정성스레 한자 한자 써내려가며 서명해 주신 할아버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회사 동료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서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제 내보내야지, 미군 관련된 거는 무조건 서명하고 봐야 돼... 서명해.. 서명해...근데 이걸 무슨 내용에요?, 진짜 열 받아요, 이거 아직 협상 다 끝난 거 아니죠? 하면서 이번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전물을 사양하시면서 내용 다 알아요, 다른 분 주세요라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 번에 이미 서명하셨다는 분들도 계셨죠.

캠페인을 시작한지 3주째...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내용이 알려지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효순이 미선이 투쟁 때 바로 인사동 이 자리에서 캠페인을 하던 기억도 났습니다. 서명숫자만 봤을 때 그때만큼의 관심과 호응을 확인한 셈이죠.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덧 글.

4월 28일, 농성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왔더니 책상위에 곱게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습니다. 어? 우편발신을 보니 제주도에서 온 겁니다.

서울평통사의 김희영 후원회원님이 10명의 서명을 채워서 우편으로 보내준 것이지요 따뜻한 남쪽의 봄기운에 몸도, 마음도 푸근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 힘으로 용산 투쟁의 큰 파도를 만들어 봅시다.

서울평통사 김 슬 기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시험공부를 하던 중이었다. 도서관에서 문자가 하나 왔다. 내일 우리 1인 시위 있는데 같이

하자 선배의 문자였다. 다음날 시험 끝나고 애들이랑 모여서 술 마시기로 했는데 어찌지... 잠시 고민하다가 1인 시위에 결합하기로 했다. 술은 언제라도 마실 수 있지만 1인 시위는 내일 꼭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들의 야유를 뒤로하고 금요일에 나는 선배와 함께 부평으로 출발했다.

부평분수대 앞에 서서 같이 온 선배는 서명판을 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에 내 이름을 붙이고 시위를 했는데 이름을 걸고 해 본 적은 처음이라 더욱 어색함을 느꼈다.

차차 몇몇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갔다. 10분이 흐르자 2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가 되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더욱 늘어갔다. 두 사람이 와서 가족이름으로까지 서명하겠다고 8명분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것은 꼭 해야 한다며 서명을 위해 가던 친구를 불러 세우는 사람, 즐거운 표정으로 모금을 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1인 시위는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었다. 나 자신에게는 이런 내용을, 부평역을 지나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고 시민들 역시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녀와서 친구들에게 니네 술 마시고 있는 동안 부평서 1인 시위 했다고 얘기하자 친구가 깜짝 놀랐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라는 말을 들었다. 정말 뿌듯한 하루였다.

인천 공대 이주은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맨날 1호선만 했으니 7호선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말에 온수역에서 7호선을 타 보았습니다. 대박이가 선동을 하고 똥이는 모금을, 저와 사무장과 감자는 선전물을 나눠주기로 하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여러분 저희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당황한 대박이가 뒤로 물러나고 다시 시작한 선전전.

7호선은 처음이라 반응들이 썰렁하기만 하고 도봉산이나 수락산으로 등산을 가시는 분과 돌아오시는 분이 많아서 잠만 쿵쿨 주무시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많았습니다.

인라인을 메고 지나는 젊은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날이 아주 좋은 봄날은 봄날인가 봄니다. 그래도 실천을 열심히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대견스러워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선동하는 내내 옳소 옳소를 연발해 주시던 아저씨. 큰박수를 쳐주던 학생. 돌아오는 길에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나두 항상 마음은 그쪽 생각이랑 같은데 몸이 안되는데 참 좋은 일 하시네요. 하시던 50대 아저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공부나 열심히 해라, 너희만 큰소리 낼 줄 아냐. 나두 큰 소리 낼 줄 안다. 조용히 해 하시며 고함치시던 할아버지. 7호선에서 좀 더 자주 하면 우리를 혼내시던 아저씨들도 점점 적어지겠죠.

이날은 800부의 홍보물과 67,000원 모금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부천평통사 김경자

◆전북 릴레이 1인시위

가정이 있는 관계로 오후 3시 45분에서 4시 45분까지, 익산역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오늘은 원광대 사범대 학생들, 약 600여명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집회를 역전 광장에서 진행하고 있어 무척 많은 사람들이 1인 시위를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진행한 1인 시위 중 가장 많은 시민들이 보아준 것 같다.

학생들은 저희들의 시위와 유인물을 열심히 읽고 지켜봤다. 화이팅,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 건 말도 안돼! 등 다양한 분노의 표현으로 저희들의 시위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다가와 어디 단체냐? 무엇을 주로 하느냐?며 묻더니, 자기도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며 어떡해야 하냐고 묻기도 하였다.

꼭 그 학생이 저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깊은 관심을 보여준 이름모를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학생들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힘이 되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전북평통사 전미영

◆평택 농활을 다녀와서◆

농민들에게 땅은 목숨과도 같다라는...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주정숙

워낙 엉덩이가 무거운지라.. 농삿일을 해본지가 없는지라...

농활을 기쁘게 가고 싶었지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만 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행히 벌써 뿌리는 일 중 방패막이만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생각대로 별 도움이 안 되는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투쟁을 하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위로를 하면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못 먹는 술을 아침나절부터 열심히 따라주셔서 몇 잔 먹고 정신이 없었던 것과 토요일 저녁 대책위 분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사실은 대책위 분들이라기보다는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인지 실제 나이보다 더 보이는 모습...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울리게 했던 건, 함께 간 기자가 정부측에서 물리력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는 질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도 담담하게,

몇 명 죽을 수 밖에 없지...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했습니다.

생각으로만 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땅은 생명이라는, 목숨과도 같다는 말, 말이 아닌 실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농민들의, 국민들의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하는 내내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너무 행복해 보이던 그 분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땅!

그곳에서 씨를 뿌리며 너무도 행복해 보이는 모습!

우리가 꼭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반대, 평택 대체부지 제공 반대 투쟁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또 하나 찾고 왔습니다.

◆회원탐방◆

시민의 신문 기자
세옥

열심히 활동하시는 다른 회원들도 많은데...쑥스럽네요

5월호 회지 회원탐방 주인공인 세옥 기자(27)는 이 코너의 주인공이 된 것을 쑥스러워 하는 눈치였다. 그의 말처럼 열심히 활동하는 다른 회원들도 많은데 자신이 주인공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터뷰어(interviewer:인터뷰하는 사람)의 입장이 더욱 익숙한 상황에서 갑자기 인터뷰이(interviewee:인터뷰를 당하는 사람)가 된 것도 쑥스러움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세옥 기자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백여 개 시민단체들이 공동 출자해 운영되는 시민의신문NGOtimes에서 환경 분야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다. 대학 4학년 때인 지난 2001년 10월에 입사해 지금까지 일해왔으니 벌써 경력 2년 7개월 차의 준 중견기자다.

환경 분야를 담당하니 환경단체 회원활동에 전념할 것 같은 그가 어떻게 평통사를 알고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일까. 사실 세옥 기자가 환경 분야를 담당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가을, 그 전까지는 시민의신문 인터넷판인 엔지오타임즈에서 사회분야, 특히 평통사가 주력해 온 FX,미군장갑차 여중생 사건 등을 담당하며 현장을 누볐다.

어떻게 평통사 회원으로 가입할 생각까지 했냐구요? 에이, 지금 현진씨가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회원 가입하라고 강요할 땐 언제고.(웃음) 농담이구요, 사실 현진씨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저한테 슬쩍 건네줬을 때 거절하려면 할 수 있었죠. 회원가입을 한다는 것은 그 단체의 성격이나 목표활동에 동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니다 싶으면 아무리 친분이 있고 담당이라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는다가 나름의 주관이거든요. 취재 편의를 위해 담당 분야 단체 회원가입 다 하다보면 월급도 남아나지 않고.(웃음)

다행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사실을 고백하자면 지금까지 부탁 때문에 마지못해 회원 가입해 준 것은 아닐까 아주 조금(?) 고민했는데 그게 아니라니... 슬쩍 가슴을 쓸어 내렸다. 세옥 기자 말에 따르면 회원가입은 단체의 성격이나 목표활동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통사의 어떤 부분들이 그의 신념의 동의를 구했는지 궁금했다.

평통사 활동에서 운동의 진정성 발견

뭐랄까. 평통사의 활동에서 진정성을 느꼈다는 것이 아마 정답일 거예요. 대다수 단체들이 문제가 되는 사회의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바로잡기 위해 활동을 하지만,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은 보여주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슈가 되는 사안에,

혹은 이슈가 될 만한 사안에만 열심인. 물론, 정말 예외적이고 소수인 경우라고 믿고 있지 만요. 그런데 평통사의 활동에선 그런 느낌을 조금도 받을 수 없었어요. 취재하는 입장에서 사실 좀 바보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직한 활동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는 세옥 기자는 구체적 예로 FX 투쟁을 들었다. 음...FX의 경우만 해도 그렇죠. 조주형 대령의 비리폭로 전까지는 FX사업의 문제점이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진 못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직하게 그 사안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에 소위 말하는 것처럼 감동을 먹어 버린거죠. 평통사 상임대 표인 문규현 신부님을 부안 새만금 관련 인터뷰 때문에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구요. FX나 미 군장갑차 여중생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해결을 위한 노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연일 터지는 다른 사회 이슈에 그 사안들을 잠시 잊은 것 같았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 역시 잊고 있었는데 문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운동의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됐죠.

세옥 기자는 현재 평통사 후원회원이다. 평통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고, 감동도 받지만 회원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아직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한다. 그는 회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분회 활동이나 중앙 조직 행사 등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활 패턴 자체가 워낙 불규칙하다 보니 그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힘들 것 같으며 언젠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기자 생활을 그만 두게 되면 일반 회원으로 전환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에서 민중의 힘 느껴

평통사 회원으로서가 아니라 수많은 현장을 누비는 기자로서 인상깊었던 기억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다. 세옥 기자는 주저 없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를 꼽았다. 그는 효순이, 미선이 사고가 났던 6월 13일에는 사실 그 사건을 크게 보도하지 못했지만 그 주 주말 평통사(당시 자통협) 등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부터 이 사건을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시민의신문은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건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

여중생 사건 이후 미국 측의 재판권 이양 거부, 미군 법정의 사고 미군 두 명 무죄방면 등이 이어지면서 11월 말 수십 만 인파가 서울 시청 앞을 가득 메웠잖아요. 당시 87년 6월 항쟁의 정신이 부활했다느니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맞본 광장문화의 시작이라느니 많은 평이 있었죠. 그런데 전 그 순간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올바른 결과를 요구하는 우리 민중의 힘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때론 민중을 우매하다 평가하는 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엔 민중의 현명한 힘이 사회를 가득 채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멋진 감동이 있었죠. 당시 취재기자들끼리도 이거 너무 멋진 거 아니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자정이 넘도록 힘든 줄 모르고 신나게 현장 취재를 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거리로 나서 국민 서로가 민중에 대한 감동을 느꼈던 경험이 결국 이번 3.12 대통령 탄핵에서도 탄핵무효 촛불시위, 자발적 투표 독려 캠페인 등의 힘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해요.

진보일수록 더 철저한 자기 감시 필요

세옥 기자의 회사인 시민의신문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4번째 노동조합 위원장 및 집행부 선출을 위한 조합원 선거가 지난 3일 열렸다. 세옥 기자는 노동조합이 재창립 된 지난 2002년 이래 총무직을 3년째 계속하고 있다. 그는 총무는 위원장 임명으로 그 전의 업무를 계속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맡긴 것 같으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세옥 기자는 노동자의 권익 등을 주장하는 진보 매체일수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상황이라며 그러한 조직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정작 자신들의 권익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뜸한다. 그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매체의 기자노동자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태만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고 감시하는 일에도 역시 노동조합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세옥 기자는 시종일관 쑥스러움과 민망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준비된 질문에 대해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때때로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끼리 이렇게 질문 주고받으니 참 민망하다며 그 동안 친한 기자들이 묻는 말에 대답할 때 어쩔나고고 습관처럼 인터뷰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다. 페이스에 말려들기 전 평화누리통일누리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질문했다.

세옥 기자는 얼마 전 문규현 신부님과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진보적이었던 정치인들이 보수, 변절 등의 평가를 받는 일이 많은 것은 그들이 날 것 그대로의 현장을 체험하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은 정치인에게만 국한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문 신부님의 말이 아니더라도 대학 다닐 때 소위 말하듯 운동권 학생도 아니었고, 집회 현장 한 번 제대로 참석해 본 적 없던 나에게 시민의신문 기자라는 역할이 주어진 뒤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끼는 경험의 중요성을 회원 모두가 잊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푸른 신록이 더욱 짙어져 간 5월의 오후에 만난 평통사 회원 세옥 기자. 그에게 진보매체 기자로서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현장을 누비며 진정성으로 가득 찬 기사를 생산하길 기대한다.

세옥 기자는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무성쓰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